

금융당국, 카드론 잔액 '예의주시' 카드사 보고, 월→일 단위 조였다

금감원, 카드사 관리상황 점검
카드론 잔액 43조 사상 최대치
"촘촘한 보고로 수시 관리나서"

카드사들이 금융당국에 카드론 잔액과 관련해 하루에 한 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월 단위 보고에서 일 단위 보고로 바뀐 셈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론 증가를 예의 주시하는 등 관리 기조가 강화된 것. 최근 카드론은 43조원을 넘어서는 등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카드론 관련 일일·주간 보고를 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카드론 잔액을 일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카드론 보고를 촘촘하게 하면서 카드론 잔액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관련 일일 보고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해 5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다. 이전에는 월 단위로 보고가 이뤄졌으나, 카드론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자 보고 체계가 더 강화됐다. 실제 카드사 9곳(삼성· 신한·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비씨· NH농협)의 카드론은 지난 4월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서울 시내 한 자동현금인출기(ATM) 기계에 표시된 카드론 문구 이미지. /뉴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42조5850억원, 2월 42조9022억원으로 증가하다 3월 42조9429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4월 42조982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달(43조2534억원) 다시 43조를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에 더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수요가 확산되면서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출 규제에 의한 제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겹치면서 카드론 잔액은 계속해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금감원이 카드론 잔액이 증가한 일부 카드사를 불러 총량 관리 강화를 요구한 데 이어, 내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을 소집해 카드론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카드론 관리 한도를 못 지킨 카드사들을 소집해 현장 상황과 관리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를 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관리 한도나 방안 없이 카드사들을 소환하고, 보고 체계를 수시로 하라는 것이 결국 알아서 잘 관리하라는 의도일 것 같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애매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metroseoul.co.kr



금융지주 저축은행 '수익 악화' 부실위험

부동산 PF·대출부실·경기침체 영향
IBK·KB·NH 저축 등 신용등급 하락

금융지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금리 대출 부실 등을 중심으로 기존 수익성이 악화된 데 더해 경기 침체 장기화·국면으로 추가 부실 가능성까지 확대되면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IBK저축은행, KB저축은행 NH저축은행 신용도를 'A'에서 'A-'로 조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하나저축은행의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했다. 주된 요인은 수익성 악화다. IB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년간 순손실은 각각 마이너스(-)299억원, -478억원, -504억원이다. KB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두 차례 큰 적자를 냈다. KB저축은행은 2023년과 2025년 각각 -936억원, -64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NH저축은행은 -562억원, -97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하나저축은행에서도 지난 3년간 총 64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앞서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은 5~6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특히, 1금융권과의 연계 영업을 실시하면서 대출 규모를 확대해 수익성을 끌어 올렸다. 현재 신용등급이 떨어진 금융지주 저축은행들도 지난 2022년에는 100억원 이상 순수익을 내던 곳들이었다. 당시 IBK저축은행은 184억원, KB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은 129억원, 2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금리 대출, 중금리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대출 규모를 키워왔던 만큼 부실이 커졌고,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쪼그라든 것.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이 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익성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객수연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KB저축은행 사업분석을 통해 "지난 2022년 상반기까지 여신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시장 내 불확실성 확대로 지난 2023년부터 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안재선 기자

"금융시장 성장 위해 신뢰 뒷받침 돼야"

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이억원 금융위원장
"개별 특성 고려 보호체계 구축해야"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설치됐다. 참석자들은 위촉장 수여 이후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체계의 구축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향후 평가 기준이 될 세부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평가체계를 심의 및 확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시행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금융접근성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현장 민원은 늘고 있다"라며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나타나는 만큼, 이제는 정책을 만

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 AI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의 개별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 정책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빈틈없는 소비자 보호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원칙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i1231@

서울 완판, 경기 줍줍 '청약시장 양극화'

서울 13곳 중 9곳 본청약 마무리
경기 33곳 중 24곳, 인천 10곳 중 5곳
본청약 이후 무순위·임의공급 진행

(올해 1~5월 수도권 본청약 결과)

구분	서울	경기	인천	합계
본청약 단지	13	33	10	56
본청약 완판	9	1	2	12
줍줍 진행	4	24	5	33
줍줍 2회 이상	1	8	1	10
올 미달	0	17	5	22

청약시장이 수도권과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경기·인천에서는 미달로 무순위·임의공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두자릿수 경쟁률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계약 포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청약홈에서 본청약을 진행한 서울·경기·인천 민영주택 56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3개 단지 가운데 9곳이 본청약에서 공급을 마무리했다.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가 모집에서 완판에 성공했다. 반면 경기에서는 33개 단지 중 24개, 인천에서는 10개 단지 중 5개가 본청약 이후 무순위 또는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특히 추가 모집 단지 33곳 가운데 22곳이 본청약부터 전 주택형이 미달을 기록했다. 영종하늘도시 대리수 어쩔과 북오산자이 리버빌시티,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등이다. 서울과 갈

*올 미달이지만 청약홈에서 줍줍 진행하지 않은 건 제외. /홍두부·청약홈

이 청약 후 계약 포기가 아니라 초기 청약 수요 자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계약 포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 다샵 분당센트럴은 1순위 평균 경쟁률 51.3대 1, 인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지인은 11.9대 1을 기록했지만 이후 무순위와 임의공급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라클라체이드프린은 26.9대 1, 래미안 알라비네는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각각 무순위와 임의공급으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접수 단계의 경쟁률이 반드시 실제 계약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청약 신청은 몰렸지만 계약 단계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나 분양가 부담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묻지마 청약 사례가 함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DL이앤씨, 1.3조 목동6단지 재건축 수주

최고 49층, 11개동에 2184가구 규모
서울 목동 일대 재건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DL이앤씨가 목동6단지를 수주했다. 사업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목동신사가지에서는 첫 재건축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27일 열린 목동6단지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찬성률 86.2%로 시공사 지위를 가져갔다.

목동6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11개 동, 2184가구 규모다. 공사비는 1조2868억원에 이른다. DL이앤씨는 목동6단지에 단지명으로 '아크로 목동리젠시(ACROMOKDONGREGENCY)'를 제안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아크로 목동리젠시는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라며 "글로벌 설계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목동



아크로 목동리젠시 투시도. /DL이앤씨

최고 수준의 조망과 조경 특화 설계로 하이엔드 주거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흥국화재, H JMDC 의료 데이터 사례 공유

흥국화재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일본 No.1 헬스케어 데이터가 여는 보험상품 개발의 미래' 세미나에서 JMDC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의료 빅데이터 전문기업 JMDC가 국내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다. 보험상품 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의 JMDC 데이터 활용 방안

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흥국화재는 국내 보험사 최초로 JMDC의 일본건강보험조합 데이터를 도입해 상품개발 업무 및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엽 흥국화재 차장이 'JMDC 데이터를 활용한 SI상품 리스크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주형 기자 gh471@